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2016. 1. 1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위기 속의 기회
2. 성장동력 기반 조성
3.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4.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위기 속의 기회

2015년도 역동적 혁신경제 성과와 평가

총평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이행기

-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창조경제 공감대 형성 -

- 벤처·창업기업의 매출 증대, 투자 유치 확대
- R&D 혁신을 통해 연구성과의 질 개선, 기술사업화 촉진
- 핀테크 도입 등 창조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

보완사항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성과 가시화 필요

- 벤처창업에서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 창출로 범위 확대
- 창조경제 플랫폼에 우리의 강점분야(한류 등 문화적 자산)를 결합하여 성과창출 극대화

우리의 현실

I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가 두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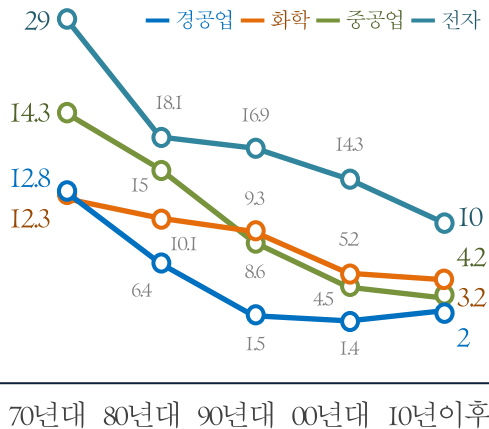


제조업 위기, 신흥국의 도전 속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은?

제조업 매출 감소

제조업 유형별 성장률 추이(%)

* 전국경제인연합회('15.11)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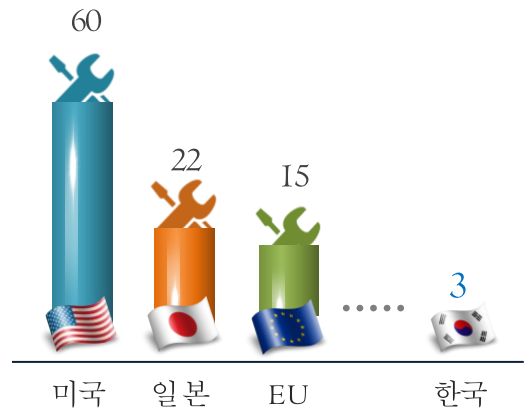
중국산 전기차-개인드론(2016 CES)



글로벌 선도기술 부족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보유 비중(%)

* 한국기술평가관리원('14.4, 592개 소분류기술 대상)



글로벌 트렌드 : 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혁신

MIT 미디어랩, 과학과 미디어 아트 융합 연구로
수많은 혁신적 기술 개발

아마존 킨들의 E-잉크, MPEG-4 오디오, 표정짓는 로봇 넥시(Nexi)...



스타워즈7, 첨단기술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40년의 흥행 역사 지속

최단기간 10억달러 수익..."포스와 함께 하고픈 미국인들, 거대한 문화현상

아모레퍼시픽, 한국적 감성과 기술력을 결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K-뷰티 선도

Forbes 세계 100대 혁신기업 선정(15.8)... 쿠션화장품 등 혁신적
특허기술



| 우수한 기술역량 + 우리의 문화적 자산

우리 IT기술의 우수함

세계최초 상용화:
CDMA, LTE, LTE-A 등

2015년 ITU ICT 발전지수 1위

ICT 수출액

세계 4위



'14

세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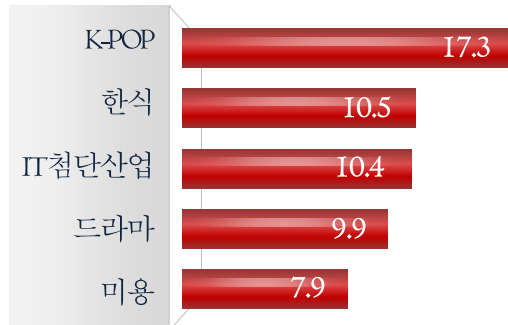


'15.8

+

한류

대한민국 대표 이미지는 문화·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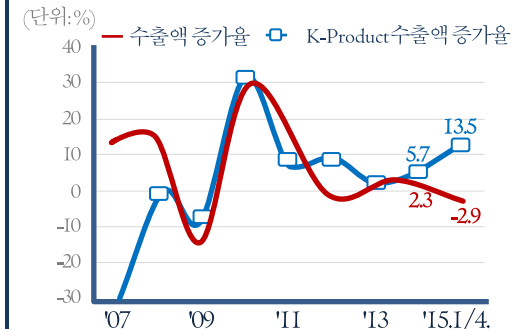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14.11.)

➡ 문화+ICT 강국

K-Product의 힘

한류의 힘, K-Product
(한류기반소비재)



➡ 수출 감소 추세 속에서도
K-Product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

기술 중심의 창조경제와 문화를 융합하여 시너지 창출 필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양 날개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성장동력 창출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보고 체계

세션 1

성장동력기반조성

세션 2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기반

산업

지속가능
한창조경
제
생태계
조성

(ICT 산업)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산업)



금융
혈맥기능
강화

(핀테크
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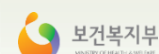


방송통신
활력 제고

(방송통신
산업)



바이오 헬
스 7대
강국
도약



신성장동
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



핵심
개혁과
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문화창조
융합벨트 정착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제조업혁신 3.0
전략 추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성장동력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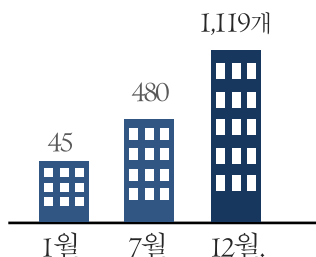
전략 I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II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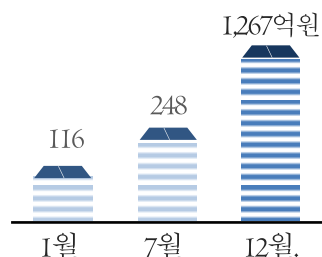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완료 및 벤처·창업 인프라 개선으로
공감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혁신센터 성과 가시화

창업·중소기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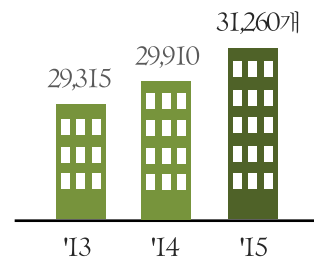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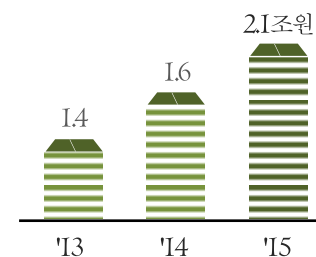


제2의 벤처붐 도래

벤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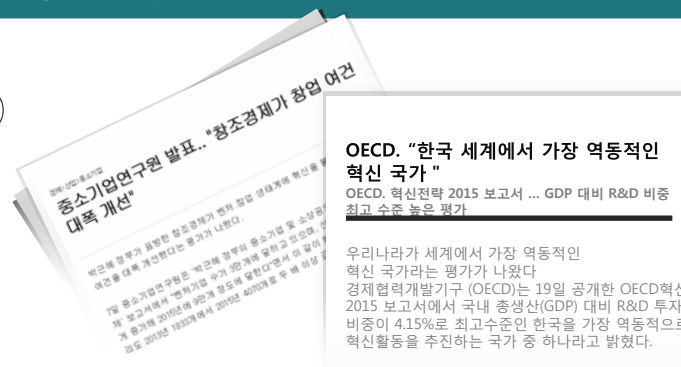


신규 벤처투자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

- [중소기업연구원] "창업여건 대폭 개선" ('16.1)
- [EU] 종합혁신지수 평가 '1위'
- [OECD] '가장 역동적인 혁신국가'



I 현장의 목소리

'15.I2

전문가
토론회

“... 대기업의 참여유인 확보 등 지속 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

“... 아직 창업 이후 성장과 재도전 환경은 어렵고,
내년에는 창업 여건이 더욱 나빠질 전망...”

'15.I2

기업체
설문조사

'15.I2

전문가
간담회

“...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



밸류체인 후반부(성장, 회수) 활성화와 글로벌 성공창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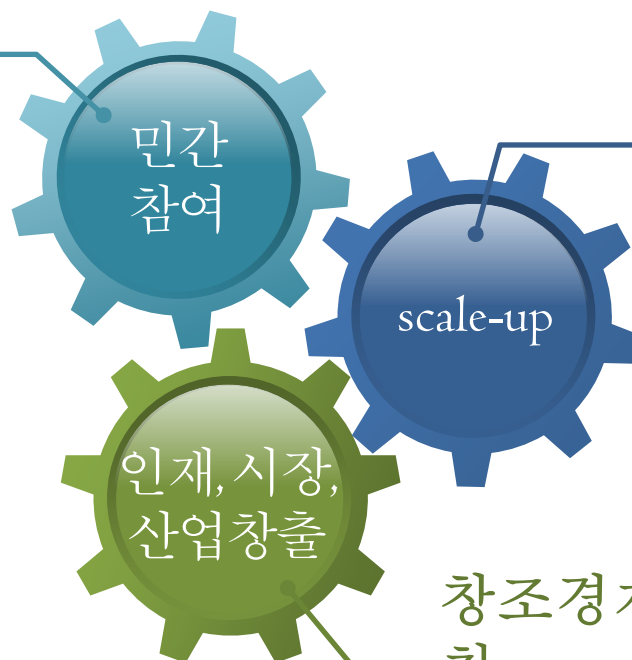


창조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과 청년 일자리·인재 확보 필요

목표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의 완성
창조적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스타트업 생태계 7대 강국 진입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
화



성공 생태계 조
성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
침



I.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자발적 참여 확산

▶ 기업 상생 모델 발전

-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LG-KPT 화장품 공동개발 등)

"벤처의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R&D, 마케팅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브랜드파워가 형성"

- KPT 대표

- 대기업 전문인력 교류
- 동반성장 투자 세제혜택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

▶ 지역전략산업 육성

- 민간투자 유도



- 규제프리존 (시범·실증사업)



- 지역문화기반 제품·관광 브랜드화

국민 누구나 참여

▶ 투자·네트워크 확대

- 클라우드 펀딩 활용
유망벤처 투자 연계

- 투자자-엑셀러레이터-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 졸업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후속 지원

"센터를 졸업한 이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 대구센터 A기업

I.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핵심개혁과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고용존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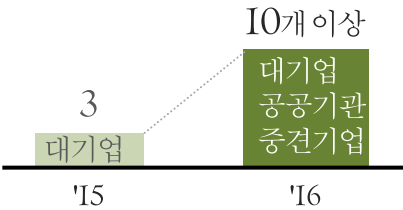
일자리 중매자

▶ 취업 희망 청년

- 스타트업 매칭데이
고용박람회
- Job-Engineering(일터 개선)
시범사업

취업 트레이너

▶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 
- 10개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 3
'15
'16
- 센터별 직무 체험기회 확대

인재 인큐베이터

▶ 대학(원) 재학생

- 기업-대학 공동 R&D(100억원)
- 창조문화산업 활동기회 확대
- 사회맞춤형학과 발굴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4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40개)

I. 창조경제 플랫폼 공고화

핵심개혁과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의 발판을 다지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판교)

- 해외 VC, 우수 스타트업 유치
- ICBM 공공 인프라 본격 가동
- 문화, ICT 융합존 구축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산업거점(상암)

- 문화창조융합벨트 연계
- 유통, 소비, 체험 인프라 확보
- DMC 페스티벌 확대



2. 성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핵심개혁과제 창조경제, 국가연구개발

쉽고, 질 높은 창업(start-up)을 돕겠습니다.

쉬운 창업의 기반 확충

- 플랫폼·아웃소싱으로 창업 비용 최소화

"업계 경험이 있어 큰 걱정 하지 않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돈 드는 곳이 한두군데가...."

-'16I월 전문가 간담회

혁신센터 중심 아웃소싱 풀 구축·확대

개발·시제품 인력 생산 유통·홍보

※ 창업비용 격감(실리콘밸리 인터넷벤처):
(00)\$5M → (11)\$5K

- O2O서비스 규제 등 스타트업 진입장벽 해소
- 공공기관 유희공간 연계 창업 스페이스 확대

질 높은 창업 활성화

- 기술 창업자 6천명 육성

창업선도대학·사관학교·대기업·벤처·TIPS 등

대기업 퇴직자

대학교수, 석·박사

연구원 전문인력

- 공공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확대

연구소기업 등

433

570개

- 통합 멘토링 체계 구축 / 액셀러레이터 연계
- 창조형 소공인·전통시장 육성

2. 성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핵심개혁과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성장(scale-up)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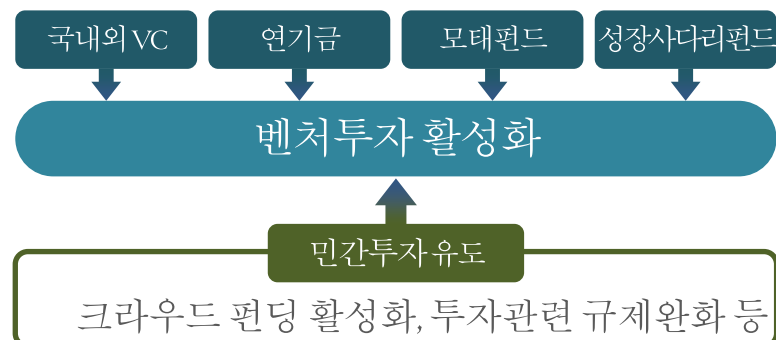
기술 R&D

- 중기 R&D 수출중심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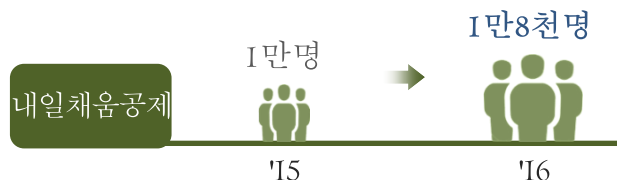
- 글로벌 강소기업, WorldClass 300 지원 강화

자금 확충



인력·고용

- 중기 핵심인력 장기 근속 지원



- 기술·기능인력 공급(산업기능요원 확대등)

홍보·유통

"수년 간 노력하여 제품은 개발했는데 제대로 알리고 판로를 뚫을 방법이 막막하여..." '16 1월 과기·ICT 신년인사회

- 혁신센터 전담대기업, 공영홈쇼핑 등 연계
- 유희 미디어자원-스타트업 연계 홍보

2. 성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핵심개혁과제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도전이 존중받고 실패가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재기



성공 Exit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

- 쉬운 M&A 여건 조성 (중기졸업 유예 등)

- 기술혁신형 M&A 세제혜택 대상 확대

중소(R&D5%)
벤처
이노비즈



기술인증기업
(신기술인증, 혁신형 제약 등)

- 코스닥 시장 독립성 강화 및 IPO 활성화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조성

- 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 재도전 프로그램 확산

- 재도전 지원센터 확대 (전국 7개)

"재창업하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10번 넘게 찾아다녔지만 신용문제로..."
-A기업대표

2. 성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유망 벤처가 대박성공으로 이어지는 롤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창업·성장의 성공사례

한국 콜마 BNH

- 공공기술사업화



한미약품

- 다부처 R&D



아모레퍼시픽

- 한류연계 해외진출



쿠팡

- 글로벌 투자



성공요인 집적·활용

성장 후보기업 발굴

- 혁신센터 등 플랫폼
- K-Global 300 등 육성 프로그램
- 수출·고용지표기반 유망중소기업



과학기술·창조경제·문화융합

- 공공연구성과 활용 및 민관협력 R&D
- 제품 스토리 개발, 멀티 콘텐츠 융합
- 외자유치 펀드 등 글로벌 투자유치



성공 사례
지속 창출

3.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침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선도적 공대혁신 성공모델 구현

과기원 혁신전략 착근·전파

창업 플랫폼화

교육 현장중심

기업 혁신 지역브랜드육성

연구 기업공동 R&D



2016 공대혁신방안 수립·추진

(‘14)
SCI 논문 중심
재정사업평가개선

(‘16)
창업, 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과기원 선도 → 타 대학 벤치마킹·확산

우수 공학교육·연구 선도모델 발굴·확산

"교육현장에서는 공대혁신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려워..."
-'15.12월 전문가 간담회

핵심산업 선도인재 양성

- SW선도학교, SW중심대학 확대
- 디지털콘텐츠·사이버보안핵심인력

산-학 인력교류 활성화

- 중기 맞춤형 Post-doc.
- 교수의 산업체 연구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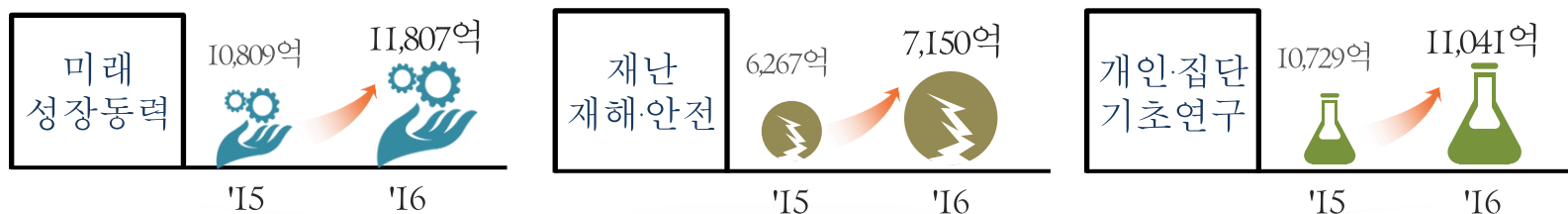
창의인재 저변 확대

- 취약계층 영재교육(사이버브릿지)
- 과학관기부/메이커 운동

3.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침

정부 R&D,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원천기술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민간 역할분담 → 전략적 R&D 투자 확대



기후
변화

- 온실가스 감축·활용 기술

바이오

- 신약·맞춤의료

거대
과학

- 달 탐사·SMART 원전

미래
소재

- 28개 신개념 원천소재
- 7대 나노기술 산업화

재난
안전

- 감염병·사이버테러

무인체

- 육해공 공통 요소부품

3.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침

핵심개혁과제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연구 몰입환경 조성

충분한연구기간확
보

"짧은 과제기간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기가
어려워..." A대학 교수

- 최장 10년 기초연구지원
- 출연(연)임무중심 장기 연구추진(5~10년)

불필요한간접최소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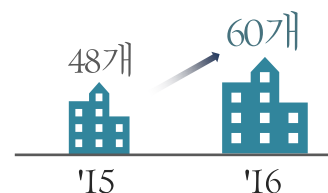
"행정서류 작업 때문에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어..." B출연연 연구원

- 소액과제 최종평가 원칙적 폐지
- 부처별 과제신청 단일 창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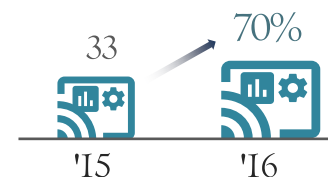
+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술지원 협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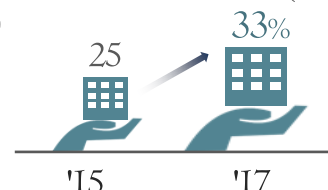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R&D 정보개방 확대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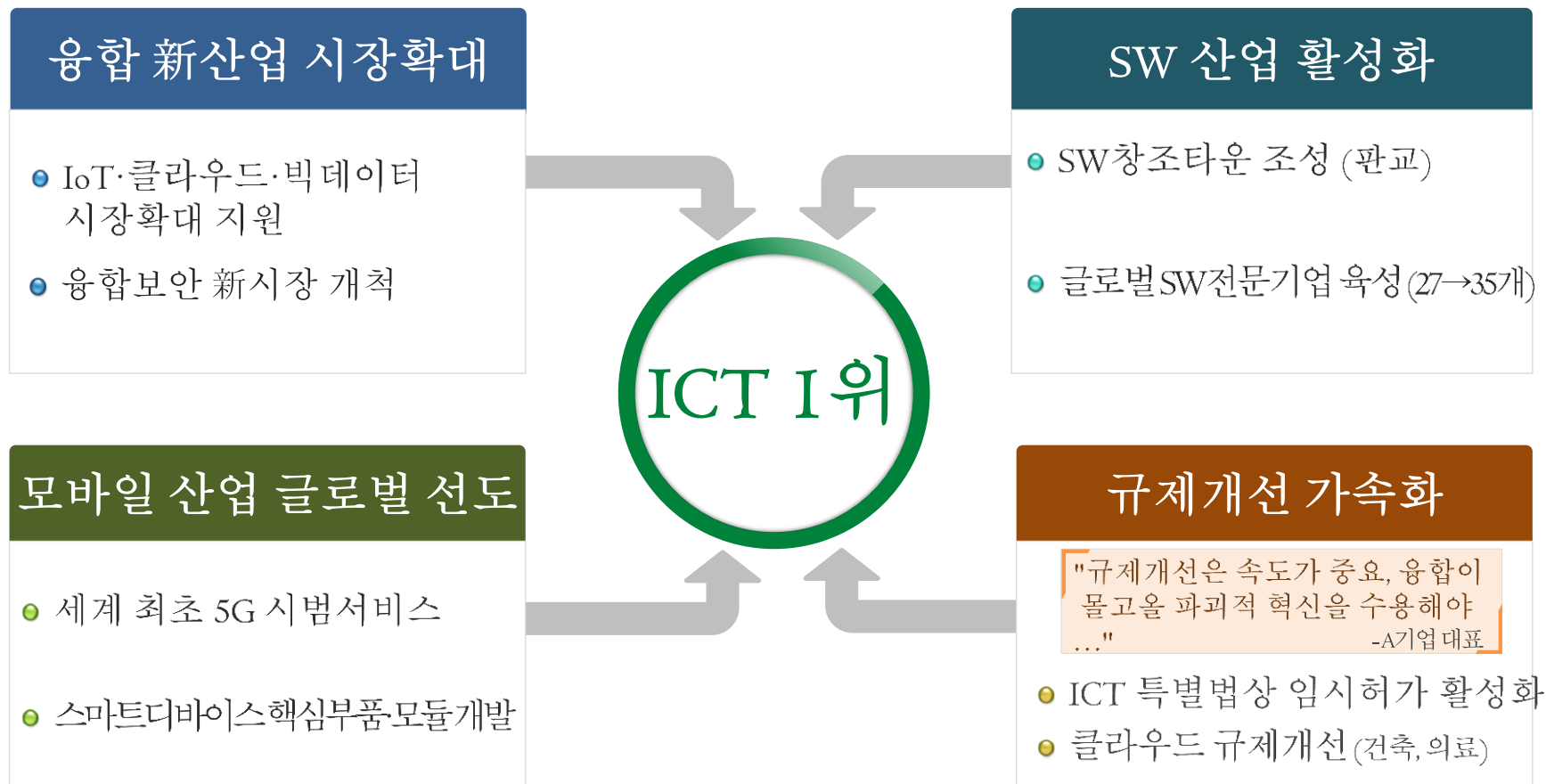
출연(연)중기지원비중 확대



중소기업 R&D 바우처 도입

3.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침

K-ICT 성과창출로 창조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3. 창조경제 지속 발전 뒷받침

혁신적 ICT 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문화-ICT 융합 선도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글로벌 진출 지원

차세대
게임

- VR 등 활용 신시장 창출

Screen
X

- 새로운 영화관 표준 선점

테마
파크

- 한류 + VR 테마파크 등
해외진출 가속화

SW 융합 파워 강화

SW + 他산업 융합 확산

- 조선 · 해양 Industry 4.0^s
- SW로 첨단 의료 시장 선점

지능정보기술 기반 구축

- 민간 주도 지능정보연구소 설립
- 기술개발 선도 사업 (300억원)

언어

시각

공간

감성

요약·창작

- 해외인력영입, Data 구축 · 개방,
기초기술(뇌과학, 슈퍼컴퓨팅, 산업수학 등) 연
계

지능정보로 성장동력 확충

K-ICT 9대 산업에
지능정보기술 적용

全산업 확대로
성장동력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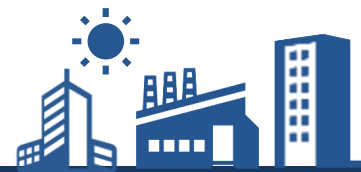
무인차

휴머노이드
로봇

헬스케어



국가사회 지능정보화 추진
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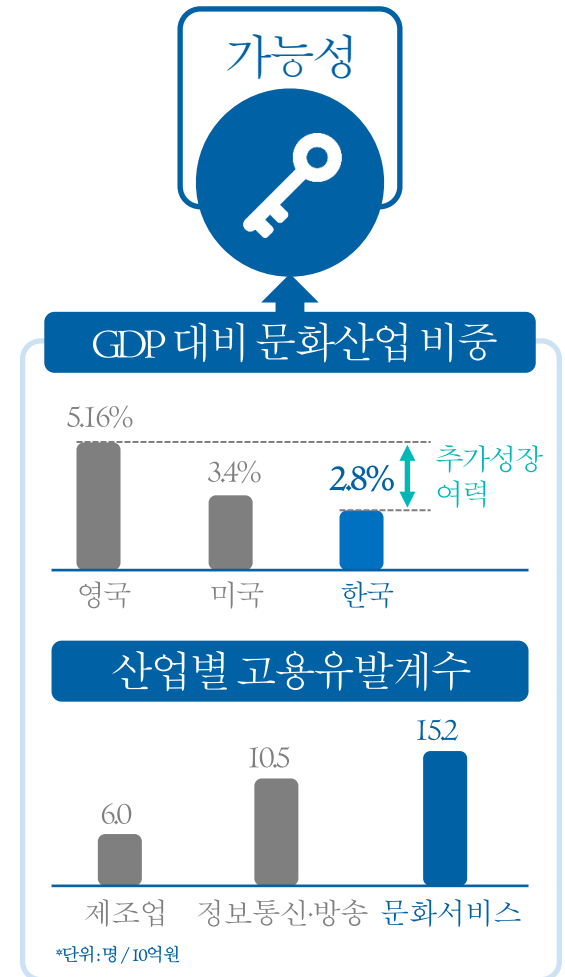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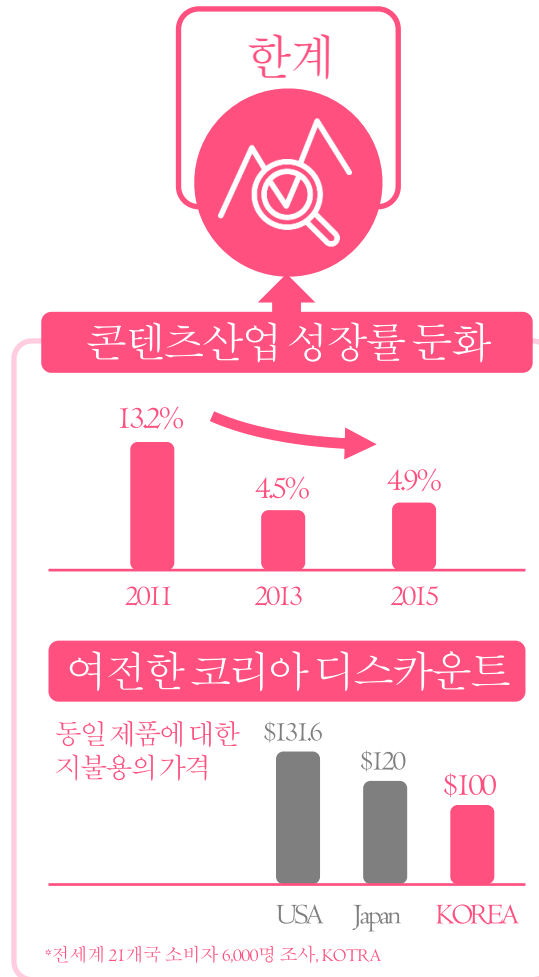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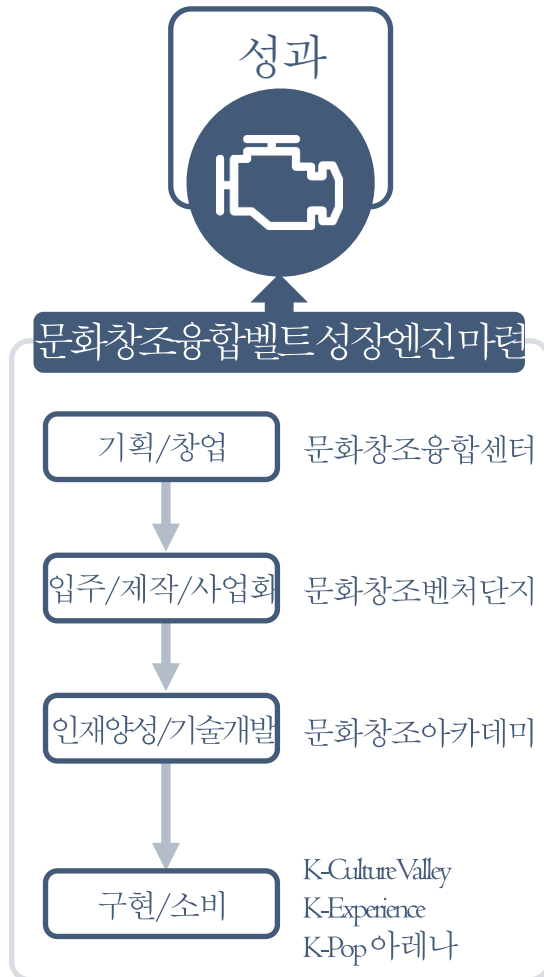


성장동력 기반 조성

전략Ⅰ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Ⅱ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문화융성으로 창조경제 발전기반을 다졌습니다.



성과 및 평가

| 현장의 목소리

'15.12

벤처단지
개관식

“... 창업을 하다보니 영세한 기업일수록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콘텐츠 해외유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판매할 때 어려움이...”

'15.12

입주기업
설문조사

'15.12

S식품
A차장

“... 정부가 중소기업 상품개발·유통에 예술적 감성을
더해주는 플랫폼을 지원해 줬으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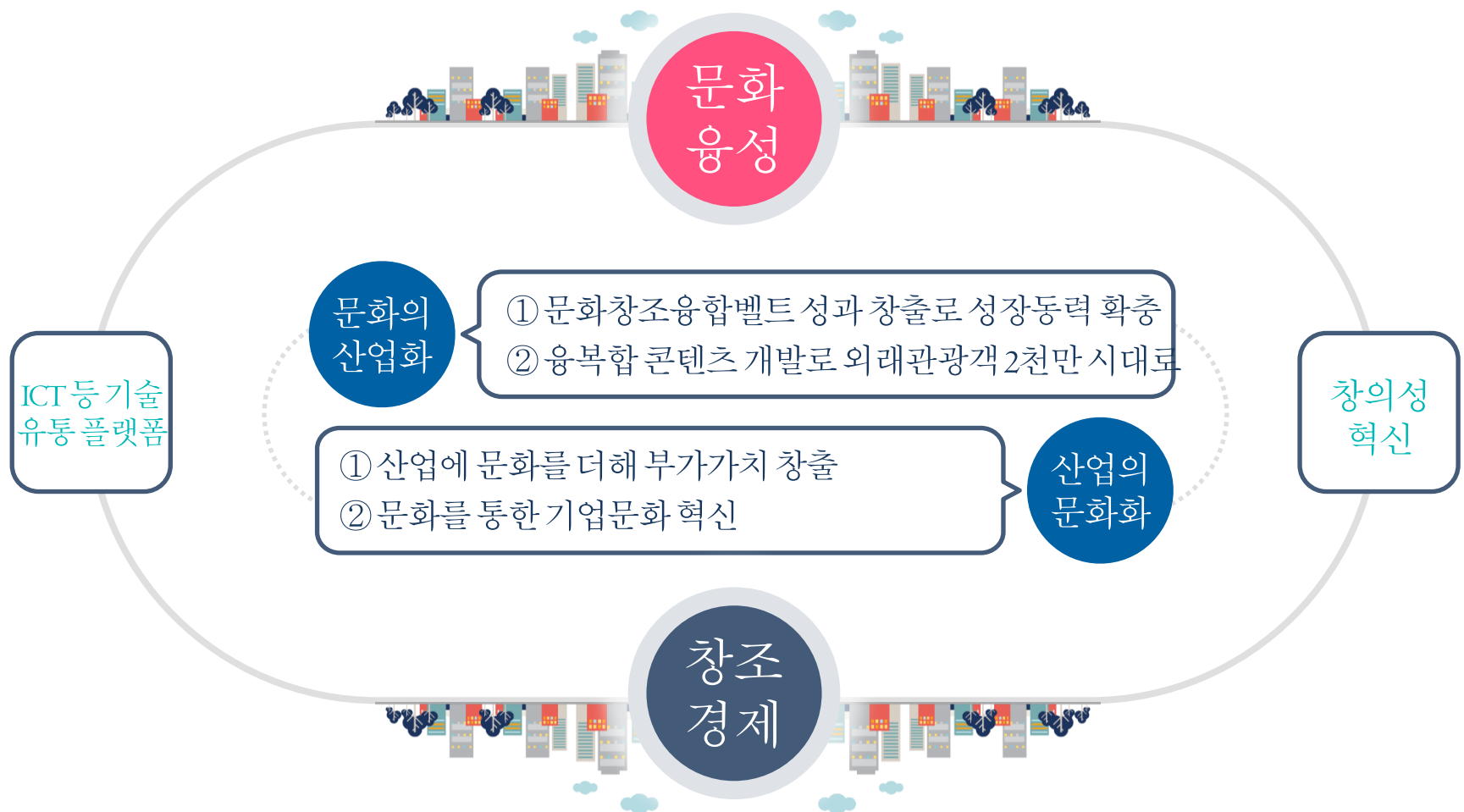


문화콘텐츠에 대한 종합적 산업 육성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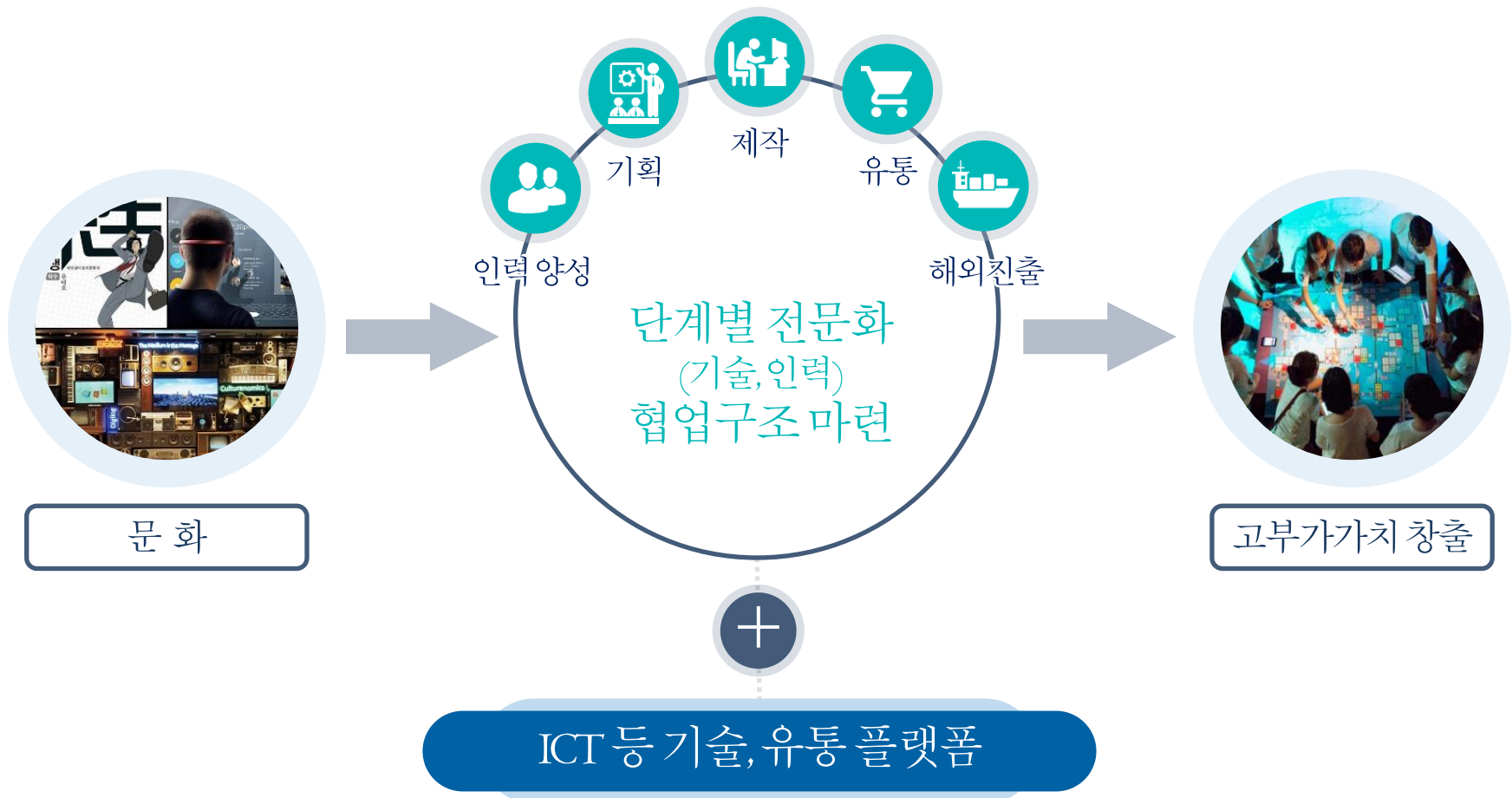
산업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

문화융성으로 5만 달러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I. 문화의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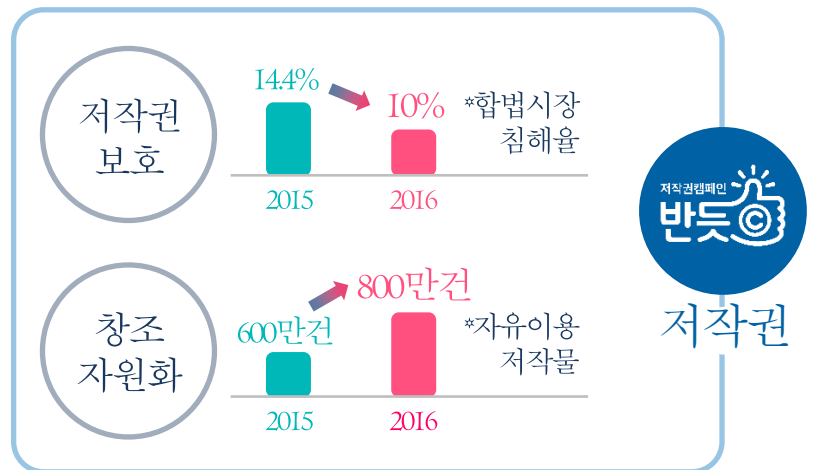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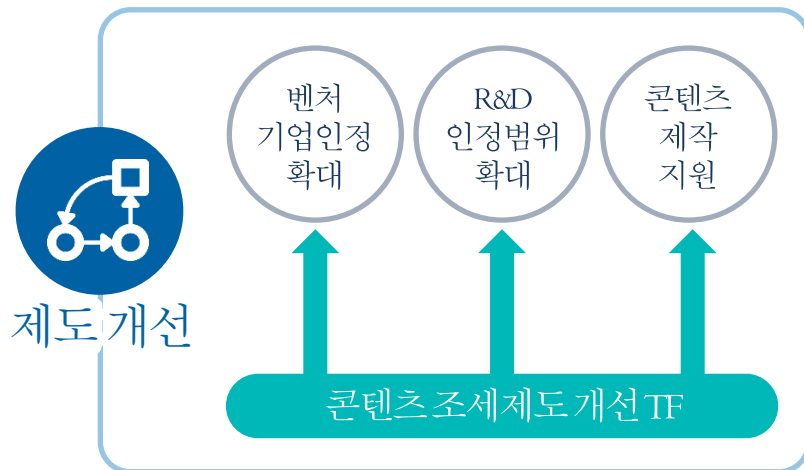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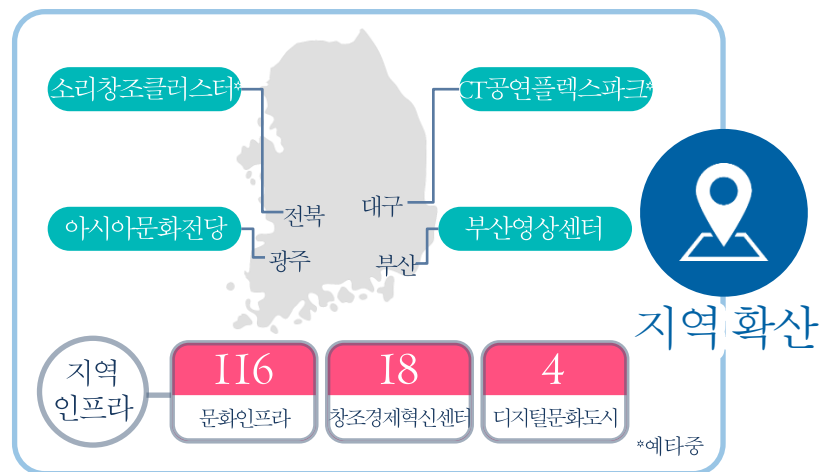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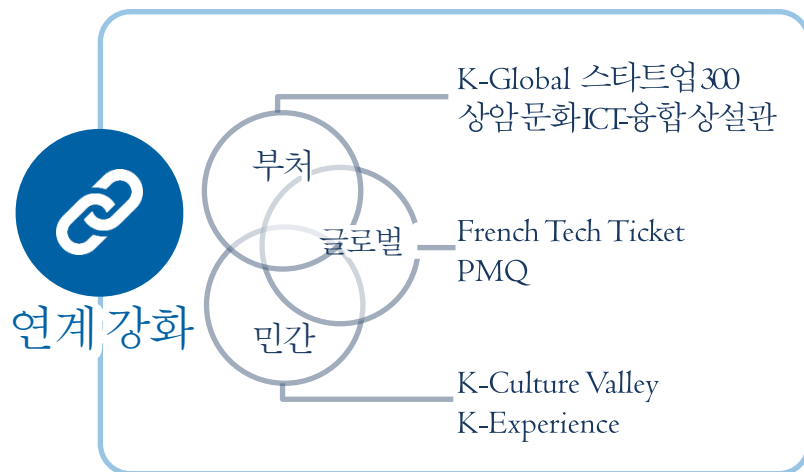
문화의 산업화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I. 문화의 산업화

핵심개혁과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로 부가가치를 높ی겠습니다.



I. 문화의 산업화

핵심개혁과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정부가 기획 · 창작 · 유통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15.12 정책 간담회

기업성과 모니터링 가동

기업성과 추적 및 분기별 쇼케이스 개최

청년 희망펀드 연계

- 벤처단지 입주기업에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 지원
- 청년희망아카데미 우수수료생에게 문화창조아카데미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청년희망아카데미 수료생의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제작 지원

- 융복합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지역기반 콘텐츠 제작
- R&D 집중 지원

대중예술인과 함께하는 cel 응원 클라우드 펀딩 / cel friends, cel partners, cel membership

I. 문화의 산업화

첨단 콘텐츠 육성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게임산업 획기적 지원

- 융복합 기반기술 게임콘텐츠 제작 및 R&D 확대(190억)
- 중동·동남아·남미 등 해외시장 확대(71억)
- 게임 인력 양성 등 산업기반 공고화(259억)



게임

돈이 되는 웹툰

- 플래시애니메이션 웹툰, 가상현실 웹툰 등 융합형 웹툰 제작 지원(5억)
- 영화·게임·캐릭터 등 웹툰 원작 OSMU 콘텐츠 제작 지원(10억)



웹툰

첨단기술 융합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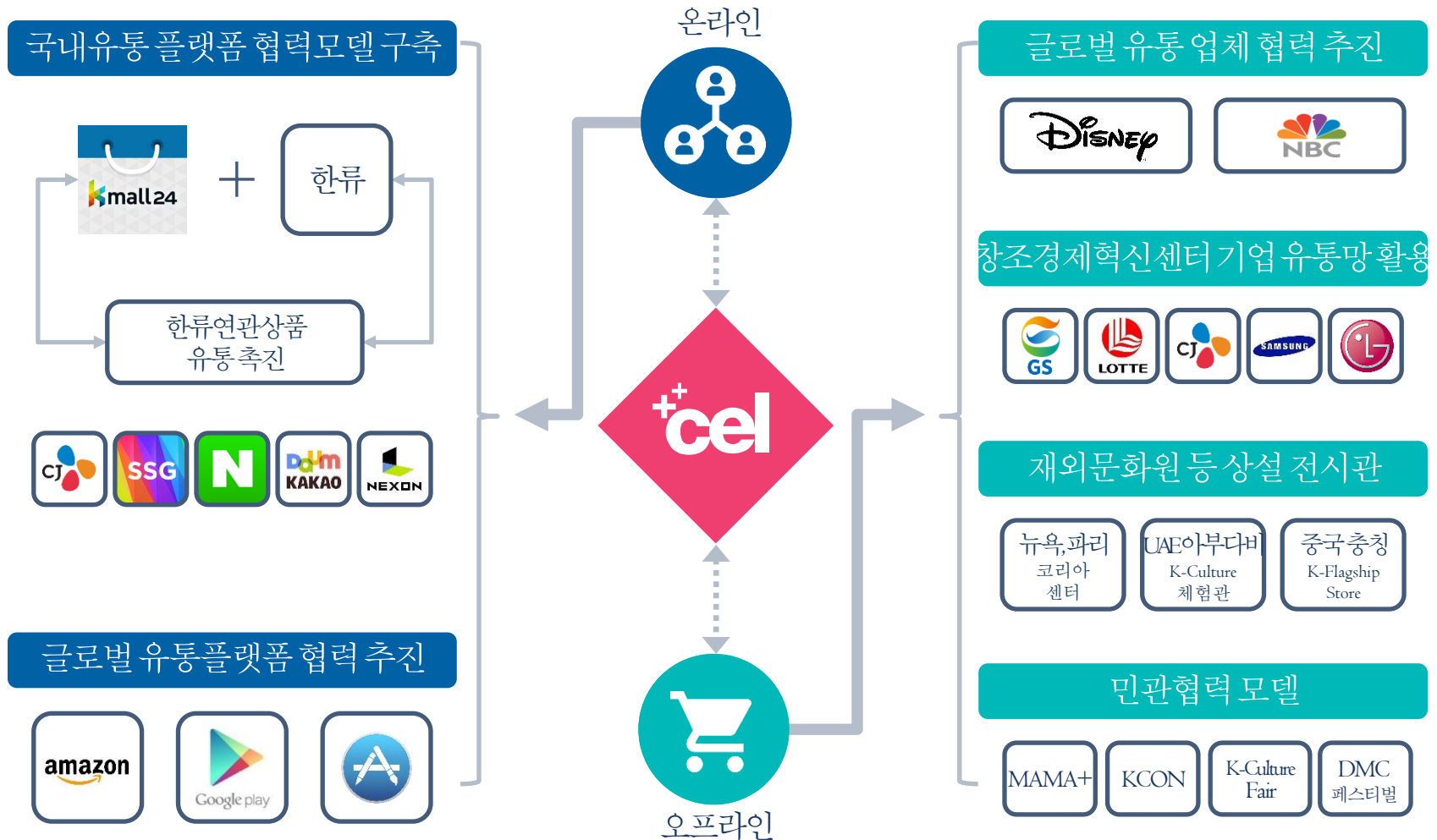
- 첨단인프라 구축(40억원)
- 고해상도 시각특수효과(VFX) 등 기술 개발(14.5억원)
- 다면상영(Screen X), 가상현실 테마파크 등 기술 개발(152억원)



영화/애니

I. 문화의 산업화

국내외 문화수요를 창출하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I. 문화의 산업화

핵심개혁과제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확충

융복합 콘텐츠로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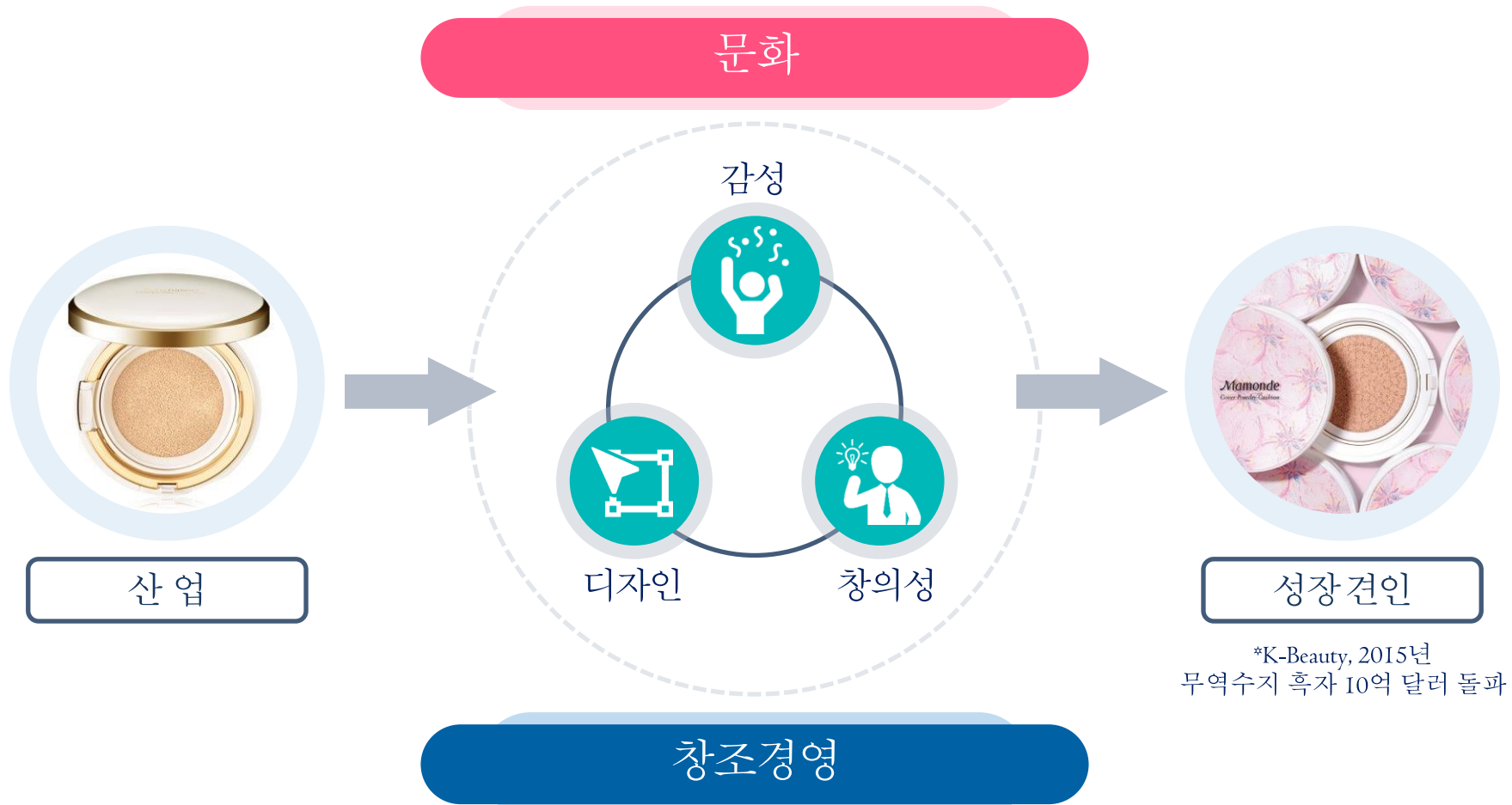
면세점, 명동을 돌면서 계속 쇼핑만 했다. 즐길거리가 더 많았으면...
관광객 A씨 중국



K스마일 캠페인

2. 산업의 문화화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 산업의 문화화

산업에 문화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디자인



- 디자인랩 신설, 인력 양성 및 제조업 융복합 시제품 개발
- 한국적 공간 연출을 통한 K-Life Style 확산

캐릭터



- 캐릭터 연계 융복합 상품 개발 지원(34억)
- 캐릭터 특화 홍보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5억)

스토리텔링



- 중소기업-스토리작가연계 상품 개발
- 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 · 상품제작지원펀드조성(100억)

2. 산업의 문화화

산업에 문화를 더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한국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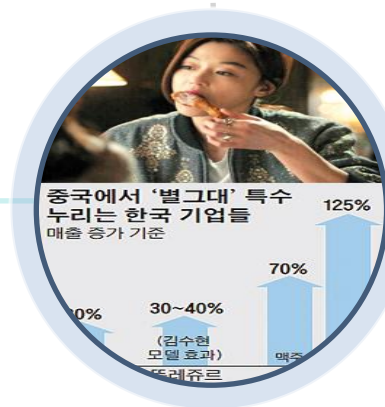
- 한복패션쇼, K-Style Hub에
한식 전시 · 체험존 운영
- 전통문화 · 과학기술 융합형
신제품 개발

관광



- 화장품 · IT 등 IO대
명품산업관광 상품화
- 민관협의체 운영 등
성공사례 공유 ·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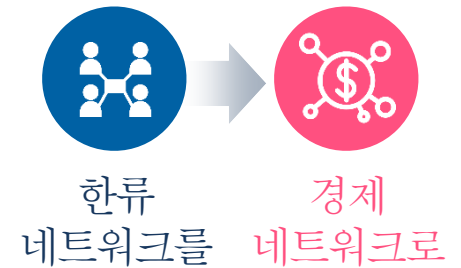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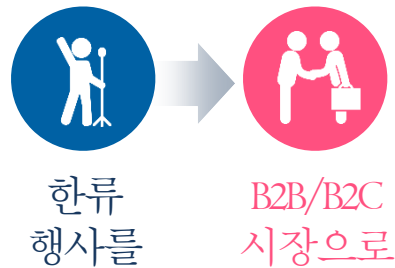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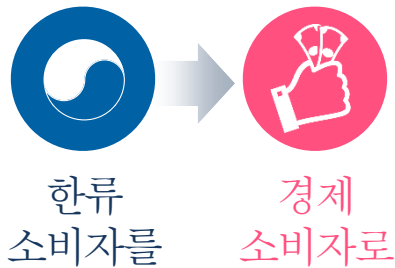
한류



-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 운영
- 방송영상 · 수출기업 연계 등
- 해외용 PPL, 쇼핑몰 연계 등
한류마케팅 공동 추진

2. 산업의 문화화

세계 속의 경제영토, 한류로 개척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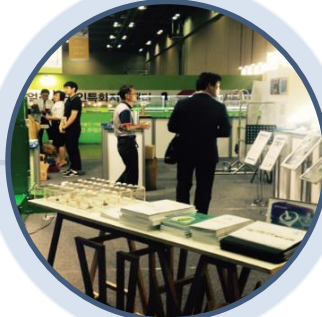


2. 산업의 문화화

문화를 통해 기업의 창조경영을 확산하겠습니다.

경영관리

- 기업 300 곳에 예술인 파견을 통해 도전·협업·재창조 가치 확산(1,000명)
- 독서경영기업·여가친화기업 인증, 인문학 강의 지원



문래동 철공소에
미술작가 등 참여

상생문화

- 전국 25여개 산업단지, 39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및 축제 지원
- 문화로 소통하는 노사문화 - 저명예술인 명예교사 파견(180회)



문화가 있는 날

사회공헌

- 기업 문화예술후원금에 지원예산 매칭(200건 결연)
- 문화예술후원 우수인증기관 인센티브 확대



제2의 조성진 발굴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 I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전략 II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전략 III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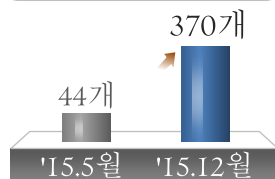
전략 IV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 금융개혁으로 경쟁과 혁신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조금융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 및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
- 기술금융(대출) '15년 중 28조원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기술금융 재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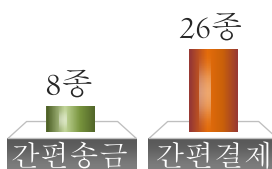
경쟁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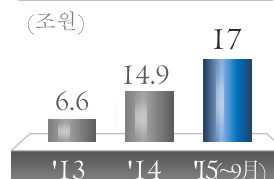
새로운 금융생태계 서비스 출시

- 계좌이동서비스로 2개월간 24만건 변경
-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 등

다양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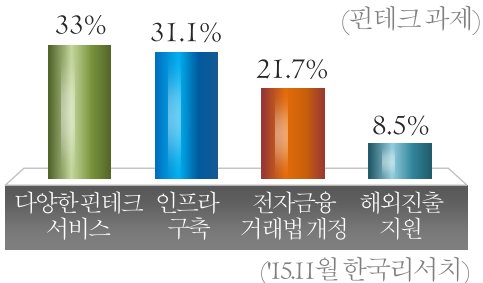


모바일 결제시장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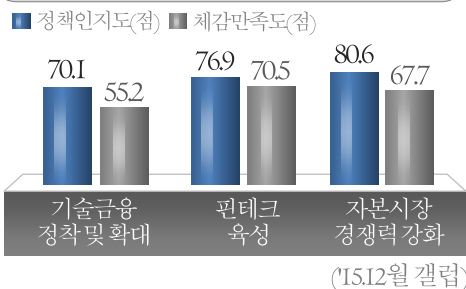


보완사항 금융현장에 뿌리내려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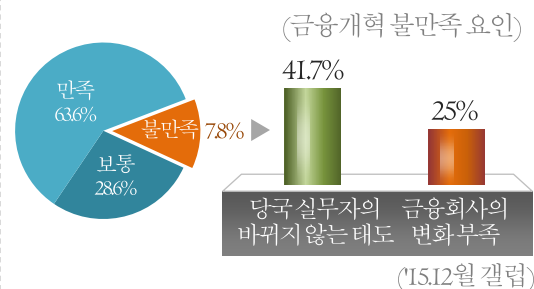
더 다양한 서비스 출시



체감도 제고 필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지속 변화



현장의 목소리

'15.12

업계
간담회

“클라우드펀딩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지속해서 일어나려면 투자할 대상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펀딩 투자자

'16.1

수요자
간담회

“핀테크에 대한 금융규제는 거의 다 풀렸어요. 이제 핀테크산업이 크려면 금융회사가 전담창구를 갖추어 핀테크기업과 적극 소통해야 합니다.”

- 핀테크기업 대표

'15.12

자산업
간담회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리려면 많은 국민들이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A증권 관계자

✓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의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금융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

'15년 87차례 현장간담회

435차례 금융회사 현장방문

금융개혁을 안착시켜 창조금융이 우리경제에 흐르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창조경제를 확고히 뒷받침 합니다.



경제

- 클라우드 펀딩 시행
- 투자형 기술금융 확대
- 창조경제, 문화융성 분야 집중 지원
- 자율·경쟁 촉진
- 성과주의 확산



산업

금융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합니다.

- 핀테크 해외진출
- 빅데이터 활성화
-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
- 보험산업 규제개혁 및 글로벌 IB 출현



국민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이 변화합니다.

- 온라인 실명확인 확대
- 계좌이동 →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확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 온라인 기반 금융상품 자문업

I. 창조경제 성과 창출 뒷받침

핵심개혁과제 기술금융 정착·확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 크라우드 펀딩 시행(1월말)

- 매칭펀드(성장사다리 등) 조성(200억원 이상)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기업투자정보마당" 운

정책수요자 간담회(112일)

"돈을 구하기 어려웠던 스타트업기업에게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든든한 채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준비기업"



● 투자 형식의 기술금융 활성화

- 약 7,500억원 규모 펀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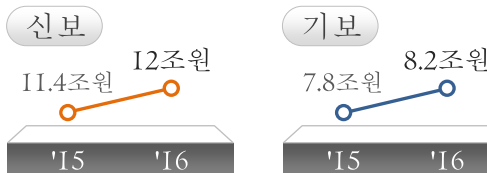
● 시중은행 자체의 기술평가 여신시스템 안

투자유치기업 현장간담회(111일)

"과거의 재무실적에 구애 받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심사가 기술기업에게 큰 도움"
- 기술금융 이용기업



● 창업 보증 규모 확대



● 5년 이내 창업기업 연대보증 완전면제

● 대위변제 후 3년 미경과 기업도 재기 보증



●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

-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분리하여 활성화하고 상장서비스 개선

● M&A 지원 인프라 구축

- M&A 거래정보망 운영, 장외시장 통한 자금회수

I. 창조경제 성과 창출 뒷받침

16년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 등에 80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1. 창조경제 성과 창출 뒷받침

핵심개혁과제 금융감독 개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 본연의 혈액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자율
경쟁 촉진

규제·감독개혁 지속

-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시행(1월) → 투명성합리성책임성 확보
- 금융개혁 지속 : 현장과 수요자 중심점검보완 → 국민의 체감도 제고



성과주의
확산

보신주의·연공서열 탈피



→ 보수·인사·평가·교육프로그램 개선



시장질서확립
소비자보호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준법강화

- 엄격한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내부통제 강화
- 불공정 행위, 회계부정 및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

2.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

핵심개혁과제 핀테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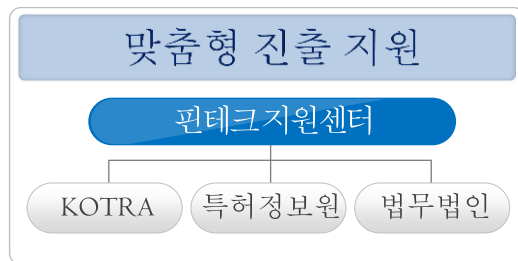
핀테크,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핀테크 해외진출

"정보부재로 해외 진출 과정상 시행착오가 상당함"

- '15.12.16. Demoday in China

● 원스톱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진출 채널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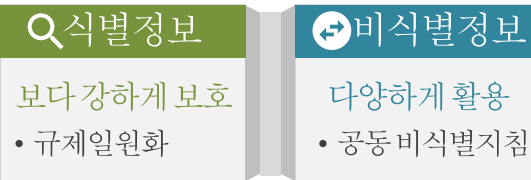
-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 英(4월), 中(6월), 美(10월) 추진
- 해외 금융회사 등과 MOU

빅데이터 활성화

"비식별 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 '16.1.12. 정책수요 간담회

●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 제거



● 빅데이터 제공 : 신용정보원 (16.1월 출범)

➔ 빅데이터 활용 다양한 서비스 등장

운전습관 등에 기반한 보험료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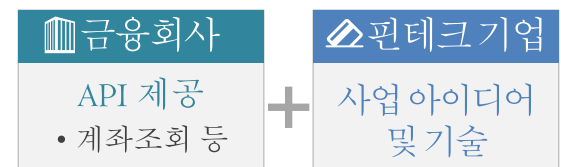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전환

핀테크 인프라 확충

"금융권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 3개월 이상 소요"

- '15.12.15. 테스트베드 개소식

● '세계 최초'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개발도구(API)제공



쉽고 빠르게 핀테크서비스출

- 핀테크 신기술 민관 합동 R&D 지원
- 금융회사별 핀테크 전담조직(52개) 및 자체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2.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

핵심개혁과제 핀테크 육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조업의 성공모델을 그대로 금융업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금융이라고 못할 일도 아니다." - "한국 금융에서 삼성전자가 나오려면", 중앙일보('15.11.28)

경쟁력 확보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 새로운 DNA를 지닌 플레이어 탄생
- 손안에서 모든 은행서비스 이용

보험



No. 5

세계 5대 보험강국 실현

-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 자율화
-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

금융 투자



글로벌 IB 출현

- 기업금융 기능 강화
- 사모시장 및 자산관리운용업 활성화

해외진출

- ✓ 해외진출 저해규제 전면 개선
- ✓ 주요국 금융당국과 협력채널 확대



3.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

핵심개혁과제 핀테크 육성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이 늘어납니다.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1/4분기)

-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16년)



신분증사본



영상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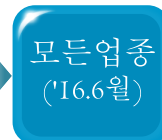


바이오인증

창구 방문 없이 모든 금융거래 가능

계좌이동서비스 업그레이드 (2/4분기)

-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 서비스범위 확대



국민의 은행선택권 확대 및 은행권 경쟁 촉진

온라인보험슈퍼마켓 기능확충 (2/4분기)

- 보다 정확하고 쉽게 비교하도록 개편

"조회한 자동차보험료가 실제 보험료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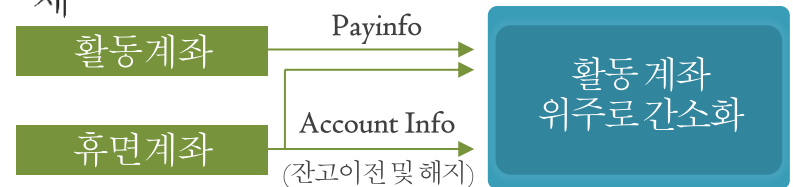
- '16.1.12. 정책수요 간담회

- 개인별 자동차보험료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

보험료 경쟁으로 값싼 온라인 상품 개발 가속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세계최초 도입 (4/4분기)

- 잠겨있는 자금을 쉽게 찾아 자주 쓰는 계좌로 이체



본인의 모든 계좌를 온라인으로 통합관리

3. 혁신적 금융서비스 혜택의 확산

핵심개혁과제 핀테크 육성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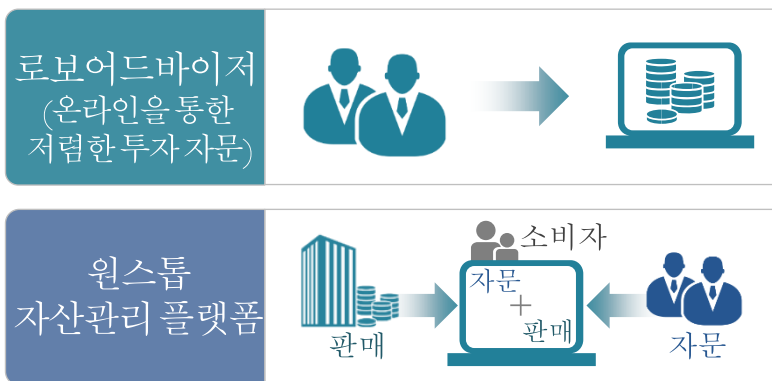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행(3월)



금융상품 구입 편의성 증진

- 펀드판매창구를 서민금융기관 등으로 확대
- 핀테크와 결합된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
- 대면자문 계약 → 비대면 자문계약 허용

자문업 활성화로 국민재산운용 지원



고객수요에 맞는 다양한상품 제공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Ⅰ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전략Ⅱ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전략Ⅲ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전략Ⅳ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015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주요 성과 /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규제 개선

-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 혁신 (9월)

광고 총량제,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

→ 방송재원확충

-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일원화 (6월)
- TV홈쇼핑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반마련 (12월)

통신 요금·서비스 경쟁 촉진

- 알뜰폰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 (가입자 592만)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확대
1,379만명
438만명
데이터중심요금제 20%요금할인

- 이동통신 가입비 완전 폐지 (3월)

신규서비스 기반 마련

- EBS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 (2월)
- 지상파 UHD 주파수 확보 (7월)
및 정책방안 마련 (12월)



기가 인터넷 도입

- 기가 인터넷 198만명 가입
- 기가 와이파이 1.2만개 구축



I 현장의 목소리

I5.I2

전문가
간담회

“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

I6.I

기업체
간담회

“ 방송광고 시장은 축소되는 반면 제작비는 상승하고 있어 방송콘텐츠 제작기반이 위축될 우려...”

I6.I

전문가
간담회

“ 빅데이터, IoT, LBS 등 새로운 융합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통신 산업 창출 필요”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산업 활력 제고

UHD 방송

- UHD방송시장 선도
- 콘텐츠 및 기기산업 육성

신규 융합산업

-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 I인 미디어 기업 발굴
- 옥외 미디어 新산업 육성

방송 한류

- 콘텐츠 경쟁력 강화
-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

개인정보 활용산업

- 개인정보 이용 촉진
- 위치정보 산업 육성

기반고도화 및 규제개선

시장자율성 제고 및 불공정거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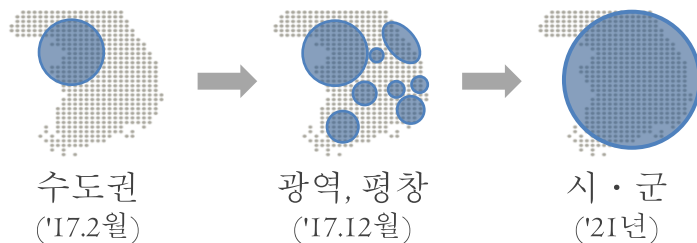
I. 새로운 방송통신 산업 창출

UHD 방송으로 차세대 방송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UHD 방송시장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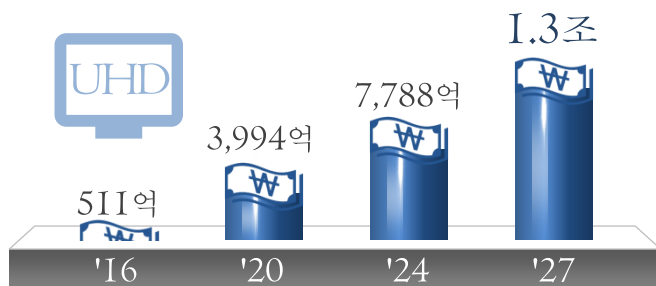
● 세계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실시

- '16.10월 UHD 사업 허가



● 지상파 UHD 방송 12년간 6.8조원 투자

- '16년 511억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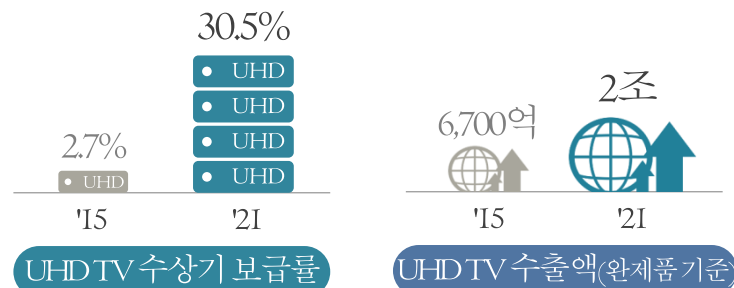


UHD 콘텐츠 제작지원

- 콘텐츠 민관펀드 ('16년 100억 조성)
 - 스포츠, K-POP 공연 등 대형 이벤트 제작 지원
- *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16.12월)에 활용

UHD 방송 기기산업 육성

- 지상파 UHD 방송표준 결정 (6월)
- UHD TV 수상기 보급 및 수출 확대



I. 새로운 방송통신 산업 창출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OTT, 웹콘텐츠 등장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

-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 OTT, 웹콘텐츠, 신유형광고 등
- 시청행태를 반영한 콘텐츠의 가치 측정 방안 마련 등

"본방송 시청률이 낮아도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의 실제 광고가치는 더 높을 수 있어..."
- '16.1월 전문가간담회

I인 미디어 기업 발굴



옥외 미디어 新산업 육성

- 서비스 개발 및 수요창출



[실증단지 기획]



[평창올림픽거리조성(~18년)]

- 중소벤처 지원 (디지털사이니지 지원센터 구축)

I. 새로운 방송통신 산업 창출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를 확산하겠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창조경제 생태계를 통한 인재 양성



미디어꿈나무 I인 창작자 미디어벤처 PD 지망생

- 중소 제작사 경쟁력 강화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15.12월 드라마제작사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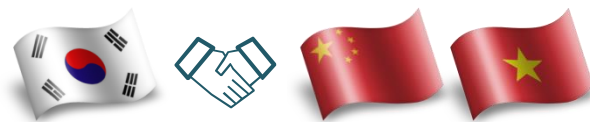


- 글로벌 온라인 유통 B2B 플랫폼 오픈 (2월)
➔ 중소제작사 해외 유통 지원

글로벌 교류협력 강화

- 국제 공동제작 협력 활성화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자국물 인정으로 해외 규제 극복
제3국 진출 (우리 기술/스토리 + 해외 자본)

- 공동제작 지원 확대 (48억원, 20~25건)
-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 확대

- 한-아세안 콘텐츠 협업 교육

- 아시아 디지털방송
아카데미 개설 (6월)



[아세안]

I. 새로운 방송통신 산업 창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촉진

- 핵심산업 분야 개인정보 이용제도 개선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비식별화
익명화 조치



선 활용, 후 거부



사전동의
완화

법제정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맞춤형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 국내 기업이 미주·EU 지역에서 개인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제도 가입

위치정보 산업 육성

-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활성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위치정보
시장 확대

맞춤형 컨설팅

특허 출원 지원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해소

"아이디어가 즉시 사업화
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16.1월 전문가 간담회

간이신고제
허가심사기간 단축

신속한
시장진입

개인 식별성이 없는
위치정보 규제완화

신규 서비스
출시 확대

2. 규제개선 등으로 산업 성장 촉진

기반고도화, 규제개선 등을 통해 방송통신 산업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혁신서비스를 위한 기반 고도화

유선통신

기가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이동통신



LTE 주파수 경매
(140MHz폭, 4월)



5G 시범서비스주파수 공급
(하반기)

혁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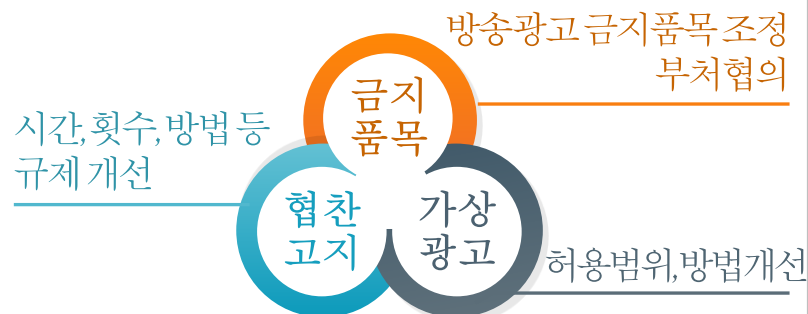
IoT, 드론 등 新산업용
주파수 공급 (300MHz폭)



IoT 유형별 요금제 등
다양한통신요금체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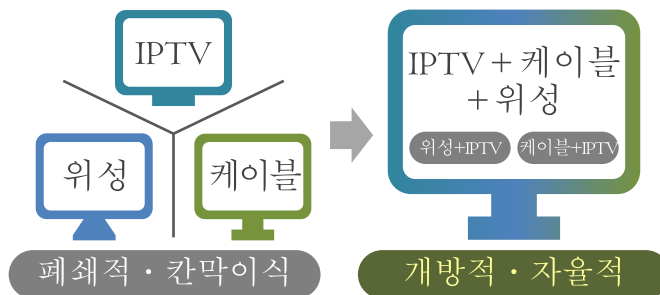
규제 개선

● 광고 · 협찬규제 완화



➔ 방송광고 제작의 창의성 제고

● 서비스 · 품질 경쟁을 위한 기술장벽 제거



3. 공정경쟁 촉진으로 산업 활력 제고

시장의 자율성은 키우고 불공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시장 자율성 제고

-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

조사 · 제재

시장 자율규제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 금지행위 구체화로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포괄적 규제

가입/이용/해지
단계별 기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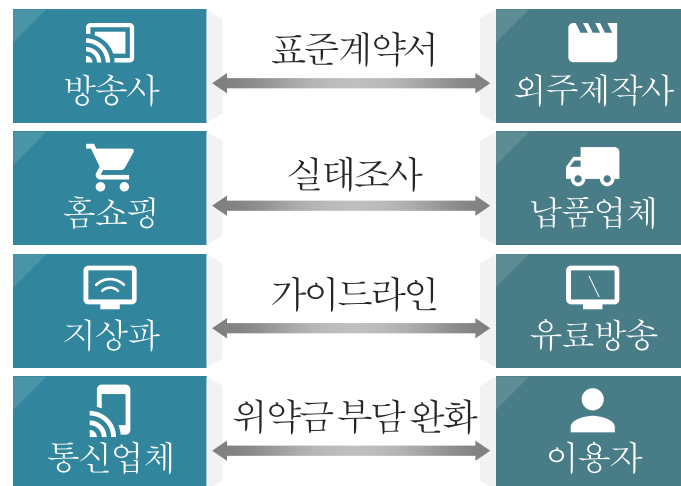
- 통신시장 경쟁구조개선 및 이용자편익 확대

- 통신망 임대 의무기간 연장 등 알뜰폰 성장지원
- 경품기준 마련, 20% 요금할인 안내 등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

- 플레이어 간 상생의 시장환경 조성

"방송시장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방송산업 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
- '16.1월 대국민 설문조사결과



-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

-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 서비스 제값 받기 환경 조성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 I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전략 II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전략 III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전략 IV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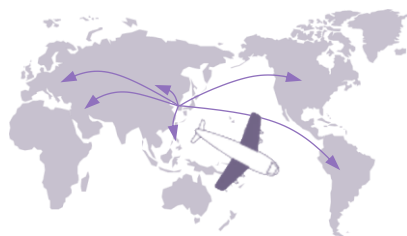
보건의료가 세계로 진출하는 원년이었습니다

정상 순방 성과

- 중동, 중남미 등 15개국 순방

- 시장개척 교두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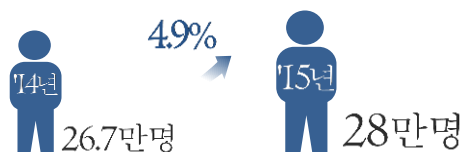
*원격의료 등 MOU 37건, 계약5건,
협력협약 등 16건(2,700억원 규모)



해외진출 및 환자 유치

- 의료해외진출법 제정 (12월)

- 유치 환자 증가



- 의료기관 진출 증가



부가가치 창출

- 글로벌 기술 수출



제약기업 9.3조원
(한미약품 8조원 등)

- 보건의료제품 수출 산업화



의약품 3.2조원



의료기기 3.5조원

I 현장의 목소리

'15.I2

민관
협의체

“국가차원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강화**해야”

“환자들이 보기에 **원격의료**는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

'15.II

환자
단체

'15.II

제약업계
간담회

“기업 스스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의약품의 혁신적 가치를 약가에 반영**해주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바이오헬스산업 전체로 성과 확산 필요

정책목표

일자리 76만개, 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의 핵심산업(대통령, '15.12월)”

중점과제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
-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산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 의료법 개정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해외진출법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준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



법적 지원체계 완비

-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9월)
*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6월)
- 미용·성형 부가세 (10%) 환급
('164~'173월)

서비스 질 제고

- 종합지원창구 개설·운영 (2월)
-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3분기)
- 외국인 건강검진 예약 시스템
구축 (1분기)

시장질서 건전화

- 불법 유치브로커 단속 (반기별)
- 진료비, 수수료 조사 및 공개 (9월)
- 의료통역 검정제도 구축
* 전문 의료통역사 연간 100명 배출 ('17년부터)



“의료해외진출법 통과는 큰 의미를 지니며 향후 높은 성과 기대” - 민관협의체, '15.12월

I.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수 증가



고부가가치 모델 진출 확산

- 의료시스템·제약·의료IT 등 패키지 진출
- UAE 국비환자 유치 ('15년 600명 → '16년 850명)

현지진출 교두보 확보

-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 확대 (키르기스 및 타지키스탄과 MOU 체결 추진)
- 의약품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확대 (우즈베키스탄 →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

중동

러시아·CIS

한국

중국

중남미

동부연안 고급 의료시장 집중

- 전략지역 선정 (북부 → 동부연안)
- 의료기관 진출 다변화 (피부성형 → 전문화대형화)

FTA 체결 효과 최대한 활용

- 협력지역 확대 (남미 → 중미)
 * 순방 후속사업 활성화
- 제약·의료기기 진출 중점 지원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공사례를 만들어 해외진출 본격화



성공사례 창출

- 중남미, 중국 등 MOU 후속 사업 추진
*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체코, 베트남('15년)
- 원격의료 해외 진출사업의 성공사례 창출

 페루 (길병원)대학병원-보건기관 원격협진

 중국 (서울성모)당뇨환자건강관리

 칠레 (KMH) 재택환자 원격진료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 아시아, 동유럽 등 현지조사 및 원격모델 개발 지원
* 글로벌전략포럼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수립 병행
- 재외국민 대상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 아시아, 중남미 재외공관 등에 헬스케어센터 설치
→ 원격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분당서울대병원)재외공관 원격 화상 인프라 구축('13년 ~)



2.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참여기관

148개



'15

278개



'16

참여인원

5,300명



'15

1만2백명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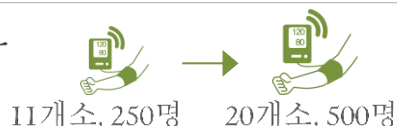
“근처에 병원이 없지만
원격의료가 있어 확실히
위안이 됩니다”

- 군 원격의료 현장방문, '16.1월

취약지 중심 서비스 확대 ('15 → '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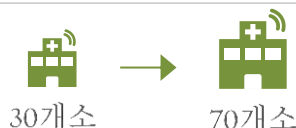
도서
벽지

- 원격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농어촌

- 거점병원-취약지
응급원격협진



특수지

- 군부대 (40 → 63개소), 원양선박 (6 → 20척),
교정시설 (30 → 32개소)



국민생활 중심 서비스 확산 ('16년)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 건강관리 (5개 센터, 250명)

만성
질환자

- 만성질환 치료·관리 (20개 기관, 5백명)
- 보건소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10개소, 1천명)

노인

- 창조마을 전문의료 서비스 (10개소, 1천명)
- 노인 요양시설 원격의료 (10개소, 5백명)

▶ 특정 지역 (고령화 지역 등), 특정 질병 대상 추가 확대 추진

“금년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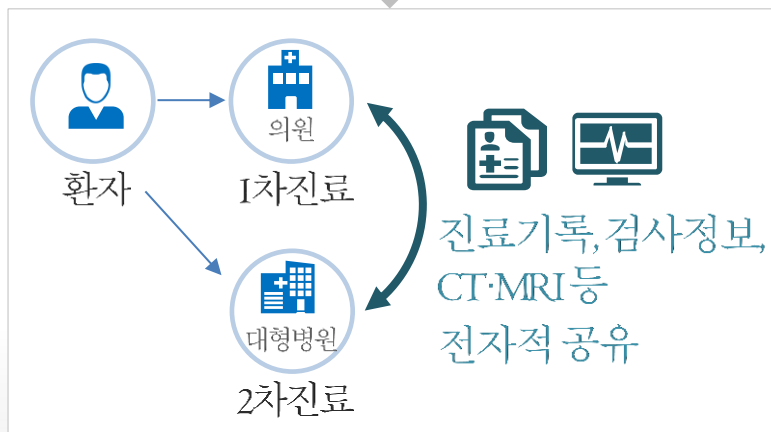
2.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핵심개혁과제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ICT기반의 진료정보 교류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의료용어, 서식 등을 **표준화** 하고,
ICT를 활용한 교류시스템 개발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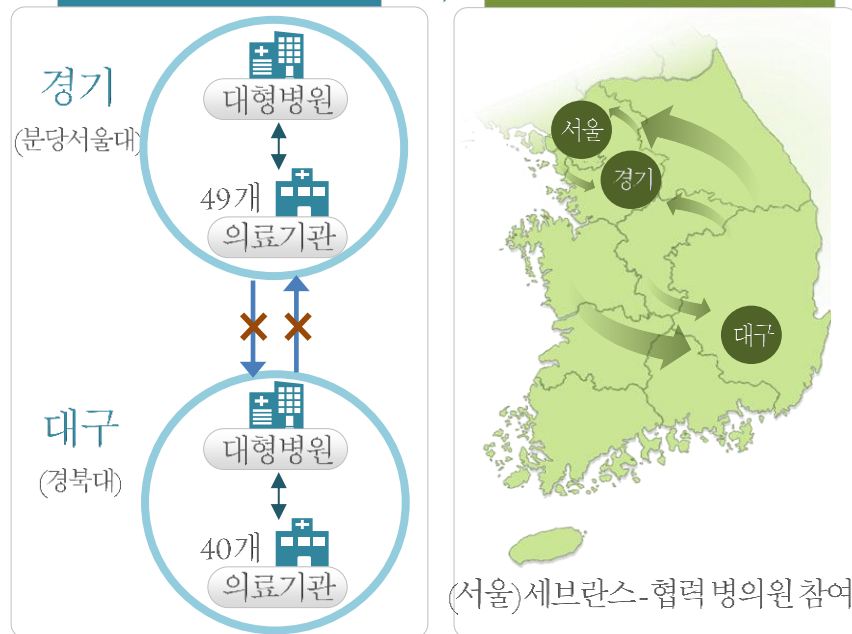
- ✓ 환자가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함 해소
- ✓ 중복검사·처방 감소로 **의료비 부담 완화**

시범사업 확대('16년)

- 거점의료기관-협력병원(서울) 참여 확대
- 서울-경기-대구간 정보교류 확대 실시

지역내 교류

지역간 교류



➡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 후 확산 추진

3.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핵심개혁과제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제2, 제3의 글로벌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진입

기업 투자 환경 조성

- 글로벌 헬스케어펀드(1,500억원) 투자 (2월~)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 시험 센터 건립 ('17년 완공)
- 바이오 GMP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16.3월~'17.2월)

규제 개선

-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신속허가(7월)
*항암제 제품화 기간 단축(10년→7년)
-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 감면

바이오의약품 등 개발 지원

- 바이오의약품(4분기) 및 글로벌 진출 신약(3월) 약가 우대
- 공익목적의 임상시험 비용 건 강보험 적용(10월)
-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R&D 집중 지원
* '16년 복지부 397억원, 미래부 505억원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진정한 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할 때” -제약업계 간담회, '16.1월

'15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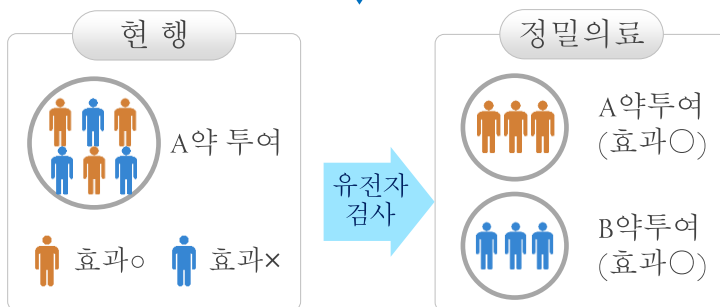
- ▶ 국내개발 신약 5개
- ▶ 한미약품 등 기술수출 26건
- ▶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장기공(삼성바이오로직스)

3.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핵심개혁과제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정밀·재생의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효과 치료율 향상, 의료비 절감



*환자군을 세분화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 선택

전망 미래의료 핵심, 유망 신산업

- 시장규모가 크며, 고성장(연 11.8%) 분야



*Grand View Research (15년)

- 글로벌 강자가 없어 시장 선점 가능

*재생의료 세계 품목허가 7개 중 4개가 한국

R&D 등 지원제도 마련

- 한국형 암·만성질환 등 맞춤형 치료 연구 지원
*복지부·미래부·산업부, '16년 360억원
- 재생의료 관련법 제정 (6월 제출)

핵심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경쟁력 있는 대규모 바이오뱅크 구축 ('16년부터)
*주요 질병별 특화 연구자원 확보 ('16년 1개 → 향후 15~20개 질병)
- 국가줄기세포 은행 설립 (4월)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 질병예방 목적의 일부 검사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6월)
- 최적 치료법에 필요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 (11월)
*표적치료제 선택검사(現 16종) 확대, 약물반응 예측검사 추가

3.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핵심개혁과제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

해외 의료기기 시장을 더 넓혀 나가겠습니다



FTA를 활용한
중국 진출 본격화

중국 시장 점유율

1.36% → 2% 달성

對 중국 수출

254백만달러 → 400백만달러

● 중국 내 생산시설 구축·인허가 지원

* 산업단지, 인허가 정보조사 및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공공조달시장 G2G 협력 강화

* MOU 체결, 박람회 및 비즈니스미팅 개최



현장 중심의
제품개발 유도

기술개발



기업



병원



기업 병원

● 의사기술창업·기술사업화 촉진형 R&D 지원

●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운영 (7개)

* 병원 내 산·학·연·병 협력 연구공간 마련



첨단·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고위험 의료기기 생산비
중



29%



35% 달성

* 인체 삽입형 인공신장등

● 융복합 진단·치료기기 등 R&D 지원

* 관계부처 총 1,155억원 투자 예정

● 맞춤형 멘토링, 단계별 허가제도 도입

* 제품 개발 단계별 심사로 개발완료 시 즉시 허가

“바이오 헬스를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전략Ⅰ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 혈액기능
강화

전략Ⅱ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

전략Ⅲ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전략Ⅳ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I.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우리 산업은 「**성장**과 **정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동향

- **신산업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 진행**
 - 기술 융복합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급속히 파괴
 - * 구글 스마트카, 필립스 헬스케어 등
 - 선진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모험자본 등을 통해 신시장과 일자리 조기 창출
- **후발국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확보**
 - * 하이얼 GE가전 인수, 화웨이 스마트폰

우리 산업의 상황

- **정부는 그간 신성장동력 창출 환경 조성**에 노력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19대 미래성장동력, 에너지신산업, 제조업혁신 3.0 등
- 유망분야의 **민간투자가 태동단계**이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지원 미흡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동력 창출 지연
-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사업재편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

- ➡ (신성장동력)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 필요
- ➡ (주력산업) 후발국 추격을 근본적으로 따돌리는 기술 융복합과 신속한 사업재편 요구

II.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과제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주도 → 민간주도

<신산업 창출>

- 민간의 신성장 분야 투자 조기가시화



*65개 기업, 122조원 투자계획 (16.1월 조사)

**서비스경제발전전략수립(기재부주관)

<주력산업 고도화>

- 기술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신속한 사업재편



과감한 규제개선

- 신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 추진
- 전국 27개 지역전략산업 선별적 규제 제로화
- 융합신제품 신속한 인증 및 표준 정립

정부지원역량 집중

- 신성장동력 분야 R&D 전폭 지원
- 금융·세제·입지·인력 등 총체적 지원
- 초기수요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촉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총력지원 체계 구축

ICT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 확보 하겠습니다.

"핵심부품 개발과 R&D 지원 확대, 주행규제 완화,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한 시장진입 지원에 주력해야."
- 융합신산업 간담회, '16.1월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

주행성능 향상, 충전인프라

- 배터리 성능제고 및 차체 경량화 지원
- 충전 요금제 다양화
- 제주도 내 충전소 완비(~'17년)

<스마트카>

부품 국산화, 시험환경

- 카메라·센서 등 부품·SW 개발 지원
- 시험운행구간, 주행시험장 확충
- 자율주행 허용 등 규제 조기개선

산업용 무인기

비즈니스모델, 테스트베드

- 공공수요 중심 실증서비스 개시
- 비행허가구역·시험시설 확대
- 항법장치 등 고기능 기술개발

지능형 로봇

초기수요 창출

- 제조로봇 시범공장 구축
- 수요 연계 모델 개발
*예: 병원용 물류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재·부품 개발, 인증 개선

- 스마트 섬유 센서 등 국산화
- 제품·연관서비스 허용범위 확대
(웨어러블 의료기기 허가시 우선심사 등)

스마트홈

표준화 및 플랫폼

- 제품간 연동 위한 KS표준 제정
- 대·중소기업간 공통플랫폼 활용
- 제조-IoT 투자펀드 확충

에너지신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겠습니다.

" 전력 공기업 선투자 등 과감한 시장확대와 성공모델 창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업계 간담회, '16.1월

ESS

신규 수요창출 등 산업화

- 송배전용 ESS 구매확대 ('16~'17, 3,800억원)
- 태양광 연계 ESS 인센티브 제공
- 비상전원을 ESS로 대체 허용
- 국가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미국)송배전용, (일본)소규모 가정용, (도서국가, 페루)신재생+ESS



태양광 등

투자확대 및 해외진출

- 하천·수상·발전소유휴지내 입지허용
- 전력공기업 투자('16~'17, 1.5조원)를 통해 RPS의무 확대 이행 ('15, 2.6% → '17, 4.2%)
- 소재·부품 R&D 대폭 확대('16, 1,800억원)
- 에너지공기업-태양광중소·중견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지원



스마트그리드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 비즈니스 성공모델 및 실증경험 확보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공동주택 등
- 전력 소비패턴 등 빅데이터 민간 제공
- 정상외교·GCF·ODA 등을 활용한 종합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미터,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소비재·신소재·바이오헬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인력·비관세 장벽해소(고급 소비재), 초기 시장 창출(첨단 신소재), 자금조달·생산인력(바이오헬스) 등이 필요합니다." -신산업 업계 간담회, 소비재업체 방문, '16.1월

고급 소비재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패션의류

- 화장품학과 개설 등 인력 양성
- 고부가 제품화 R&D 지원 ('16, 877억원)
- 비관세 장벽 해소 위해 한·중 FTA 채널 활용 및 상호인정 추진
*유아용품 위생허가 절차 간소화 등
- 한류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해외 판로 개척 집중

소비재 산업 종합육성대책 마련 ('16.3월)

첨단 신소재 탄소섬유·마그네슘·타이타늄

- 신소재 시험인증시설 확충
- 자동차·항공기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R&D 확대
- 탄소섬유를 활용한 CNG 운반탱크 시판허용
- 해외바이어 발굴 및 판로지원



바이오헬스 의약·헬스케어·의료기기

- 초기 바이오 벤처전용 투자펀드 조성 ('16, 300억원)
- 바이오의약 생산전문인력 양성 ('16, 100명)
- 개인건강정보 통합·활용 시스템구축
- 사용자(병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의료기기 개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장이 적기에 준공·가동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중앙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 반도체업계 간담회, '15.12월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 철강업계 간담회, '16.1월

조선·철강·석유화학

- 친환경 선박, 고성능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 추진
-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
 - 기활법령 제정, 공급과잉기준 마련
 -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 민관공동 업종별 수급 및 적정 설비규모 전망 제시
 - * 일본은 과잉업종별 분석보고서 발표



반도체·디스플레이

- 대규모투자통한세계1위 유지
 - * 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 지원
- 중국등 경쟁국과 격차 확보
 - OLED, 파워반도체 등 유망제품 개발촉진



플랜트·원전·방산

- 미래유망 기술과 수출형 기술 개발 지원
 - * 저탄소 발전, TX 사업용 모델 등
- 정상회담 등 외교협력 채널 적극 활용
- 수은·무보 및 EDCF, AIIB 등 경험자금 활용 수출금융 지원
 - * 수은 18조원, 무보 10조원



중소·중견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공장 구축·확산 → 산업 전반 생산성 향상

2-1.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정부는 획기적 규제 완화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은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차후에 정말 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제연구소장, '16.1월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 규제 완화 (무투회의등 활용)

-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완화
 - 개인(프로슈머) 생산 전기 직접 판매 허용
 -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 허용
-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 완화
 - 대용량(IMW이상) ESS 전력거래소 판매 허용
 - 전력중개사업 허용(소규모 전가를 모아 거래소 판매)

➔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협의체」 신설해 추가과제 발표('16.1.)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완화

-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
- 이행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
- 규제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존 즉각 해소
 - * 기업애로 접수후 30일내 규제적용여부 회신
 - 규제존재시 규제특례여부 60일내 확정

신산업 전반에 대한 신속한 인증·표준 정립

- R&D 단계부터 인증기준 및 표준 동시개발
 -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 지원('16, 300억원)
 - 정부 R&D 사업 수행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 이미 개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신속한 적합성 인증(6개월내)

해외인증기구와 상호인정 추진

- 국내 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 인증 획득시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 부여 방안 추진



2-2. 규제개선 및 정부지원

R&D·인력·판로지원 등에 정부 역량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은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정부가 R&D자금, 저리융자 등을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개발된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융합신산업 간담회, '16.1월

R&D 집중지원

-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대폭 확대
* ('15) 2.5조원 → ('16~'17) 7조원
-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 융합 R&D 우선 지원
- 신성장동력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해당 분야 세액공제 전면 허용(71개)

금융·세제·입지 지원 확대

-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5조원 지원
-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부품 할당관세 확대
-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지정 확대(국토부)

맞춤형 인력양성

- PRIME사업과 연계, 신산업 등 학과신설 및 정원 확대
- 신산업 분야 기업과 대학 공동 석박사급 인력 양성
* ('15) 700명 → ('16) 1,400명
- 기업현장에서 필요한 '신산업 NCS(국가직무표준) 개발

수요창출 및 판로지원

-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 대폭 증액
* ('15) 2.5조원 → ('16) 6.4조원
- NEP 의무구매기관 확대: ('15) 214개 → ('16) 440개
- 정상외교, 한류, ODA 등을 활용, 해외 판로 지원

신산업투자·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민자·외국인투자 및 해외 M&A 확대 방안 마련('16.4월)

신성장동력 투자애로를 상시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거버넌스 구축(원스톱 애로해소)

- 산업부 주관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 신설 (애로 접수창구 일원화)
-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부처 지정 및 무투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
- 「신산업민관협의회」 (업계, 국내외 전문가 중심)를 신설하여 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 신산업 지속 발굴, 지원도 병행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 (산업부)

- 애로사항 접수 (창구 일원화)
- 책임 및 협조부처 지정



책임부처

- 주요 대형 프로젝트별 국장급 담당관 지정
- 민관 협의체(T/F) 구성
- 관계부처 협의 및 개선방안 도출



무역투자 진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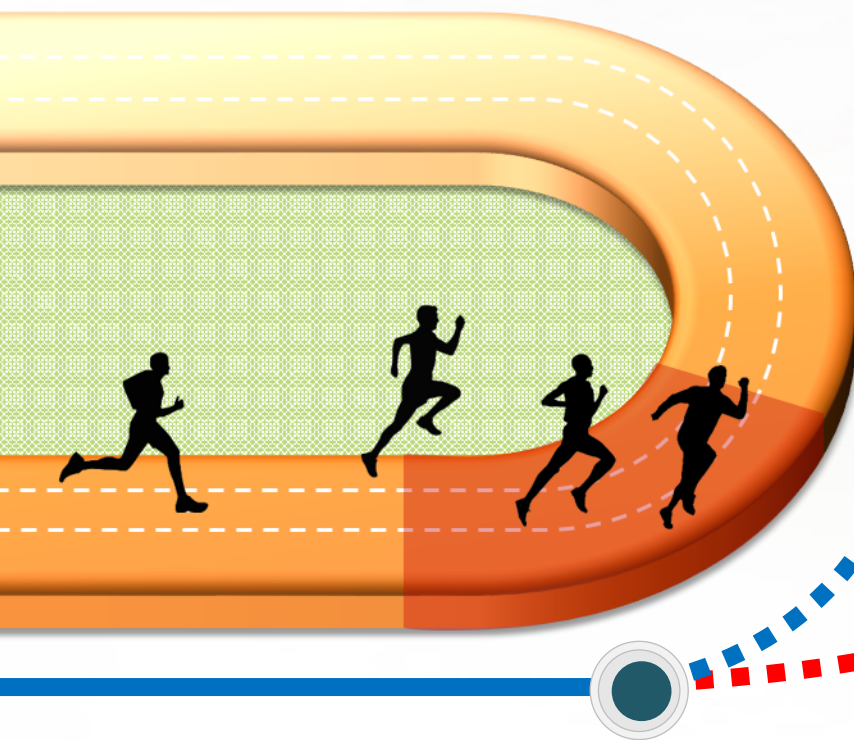
- 책임부처 개선방안 보고
- 처리 경과 및 결과 보고



“400미터 계주 경기의 승부는
곡선구간에서 벌어집니다.”

“한국산업은 지금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금 성장 궤도에 제대로 진입한다면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기다립니다.”



이행방안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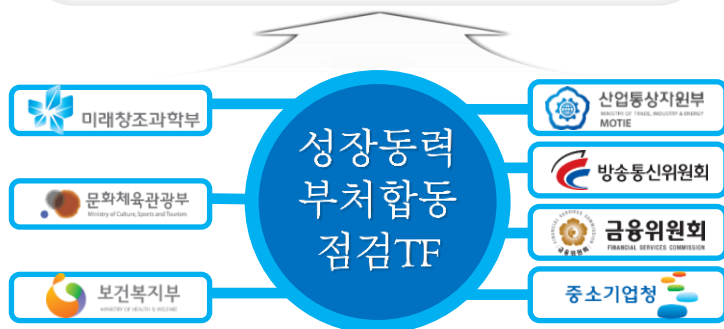
추진과제 요약



이행방안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과관리

성장동력 합동 점검회의



*하위분과로 바이오헬스 산업 민관 협의체(간사:복지부)운영

민간혁신 촉진 및 글로벌 지향

- 정부-민간, 산학연간 R&D 역할 분담 명확화
- 정부의 산업 육성 →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
-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집중지원
* 신성장동력 투자지원단(산업부) 운영
- 글로벌 허브 조성 + 글로벌 진출

규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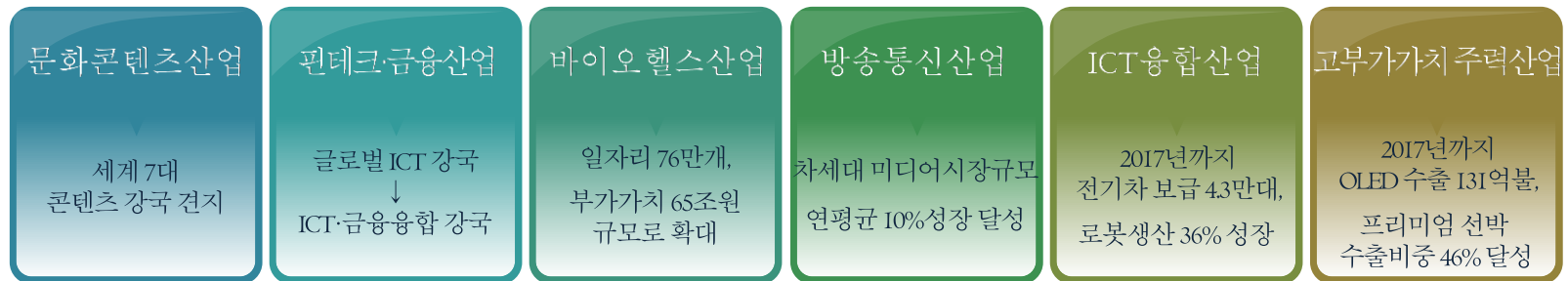
-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및 시범사업 추진
- 부처간 협업을 통해 규제 점검 및 법·제도 정비
- 에너지신산업 진입규제 개선

홍보 및 현장소통 강화

- 2016년 새로운 정책방향 집중 홍보(I분기)
- 주요 과제별 현장점검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 점검·보완 지속
- 모바일 First 이용자 급증에 따라 쌍방향 소통을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

경제혁신 성과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수출 증가, 내수활성화



창조경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스타트업 생태계 세계 7대 강국 진입

문화융성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로
국민소득 5만불 시대 선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양 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